

강소특수 사업화지원 설명회

군산시, 전기차클러스터 수요-공급기업간 컨소시엄... 1건당 2억원 기술사업화 지원

군산시가 강소특구 특화분야 상생협력형 사업화지원 설명회 개최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9일 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에서 2022년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의 핵심사업인 '전기차클러스터 상생협력형 사업화지원' 설명회를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산학융합원 등 혁신기관 및 전기차 관련 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전기차클러스터 상생협력형 사업화지원'은 군산 강소특구의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분야'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특화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화 추진 및 상호 협력을 통해 매출과 일자리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 종료 후에는 수요·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특화분야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개의 수요기업과 3개 이상의 공급기업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으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군산 강소특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생협력력을 기반으로 직접적인 수요·매출이 연계될 수 있는 기술사업화를 3개 과제 내외로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 강소특구는 1차년도에는 강소특구 생태계를 구축했다면, 2차년도에는 내실있는 강소특구 특화분야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기관 간, 기업 간, 특구 간 상생협력력을 통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분야 클러스터 육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임신에서 육아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이동전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맞춤형 육아정보 '한 손에'

익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 정책 체계적 정리

익산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임신에서 육아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이동전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육아가 즐거운 명품이동전화도시 조성을 위해 매년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을 발간해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다.

임신·출산·출산·육아가이드북은 임신, 출산, 맞출 육아, 맞벌이 부부, 가구별 맞춤 지원 등 생애주기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익산시만의 특화 지원 정책인 출산장려금, 임신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휴일, 야간 시간제보육사업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다함께 돌봄, 이동식 놀이교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보 부족으로 적절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 가족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북은 지난 4월 기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정에 우편 발송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무료로 비치해 누구나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익산시청과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파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기가 행복한 육아가 즐거운 명품이동전화도시로 누구나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버리고·비우고·채우는 다이로운 익산여행' 출발

문화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공모 선정... 9천만원 국비 확보

익산시가 정부가 공모한 종교문화콘텐츠 활용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종교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500만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9일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버리고, 비우고, 채우는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버리고, 비우고, 채우는 다이로운 익산 힐링 여행'은 4대 종교도시 익산에 걸맞은 종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아픔을 풀어내고, 걷기와 명상 등으로 치유와 희망의 삶을 열어가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백제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미륵사지와 천년고찰 승림사, 우리나라



익산시가 정부가 공모한 종교문화콘텐츠 활용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첫 사제 김대건 신부가 첫발을 내디딘 나비위성당,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백지사지터와 숲정이성지, 4.4 만세운동을 주도한 오산 남전교회, 남녀유별을

'기'자 건축 양식으로 풀어진 두동교회, 원불교중앙총부 등 4대 종교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역전의 명수 기념행사 시민 사진 공모전 시작

군산시가 시민들의 '역전의 명수'에 대한 기억과 감동을 모아 추억을 선사한다.

시는 10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역전의 명수 군산' 시민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 사진공모전은 지난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 역전의 명수의 감동과 전율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자 마련

됐다.

공모주제는 1972년 황금사자기 야구대회 관련 사진(야구대회 현장사진, 선수 환영식 및 카퍼레이드 사진, 1971년 가을 전국체전 우승당시 사진, 1972년 우승당시 기업은행 예?정금 통장 등)이다.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진은 1인 2작품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사진공모전 참여희망자는 군산시 홈페이지에 있는 참가신청서와 첨부된 서식을 받아 작품과 함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100작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며, 입상작품은 '역전의 명수 군산! 50주년 기념행사' 사진전시회 및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미래성장 탄탄기업 청년근로자 직무교육

군산시의 전북산학융합원은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 참여 근로자 직무교육을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채용 된 청년근로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청년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군산시 청년정책의 이해, △제조산업과 IT산업동향, △사회초년생 체제 교육, △스마트공장의 이해 등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각 과정은 청년·창업센터 안태욱 센터장, 유호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전주대 한동욱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대학 사업단장, 김계수 산업경영기술원 전문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내실있게 진행됐다.

한유자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거듭나고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석훈 전북산학융합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 청년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청년 프로그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일제점검

군산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펌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포천 배수펌프장 비롯한 우수저류조, 유수지, 배수갑문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배수펌프장 일제점검은 담당 공무원, 기계·전기설비 전문업체 등과 합동으로 배수펌프, 배전반, 스크린과 제진기 등의 관리 상태를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편단(행정안전부)의 점검기준에 따라 실시했다.

이번 점검으로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전기·기계 고장 등으로 인해 펌프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익산시는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9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관내 감염취약시설 130개소 방역관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방역관리 및 자체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관내 코로나19 발생 대응 현황과 집단감염 대응 방안, 감염취약시설 예방관리, 의료기관 집단감염 발생 대응 사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 코로나가 감소추세지만 시설 내 집단감염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확진자의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의료기동진단반을 운영해 노인 요양시설에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